

오늘의 기사관

대학입시 무료 설명회

18일) 2006 광주시 문화예술상 시상식=오전 10시 5·18 기념문화센터. 화정 3동 사무소 개청식=오전 10시30분 광주시 서구 화정 3동 사무소.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촉구 및 노관규 순천시장 규탄 기자회견=오전 11시 순천시청 앞. 수원-하남 2 집단에너지사업 기공식=오전 11시20분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현장. 열병합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와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신개념 에너지 시설로, 1천874억원을 들여 시간당 10만9천kw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 2기와 1억kw급 열전용 보일러, 2만5천㎡급 축열조(열 저장시설) 등 건설 예정. 대학입시 무료 설명회=오후 2시 KT전남본부 빌딩 3층 대강당. 이영덕 서울 대성학원 평가실장, 우부남 광주 대성학원 진학실장이 전국 주요 대학 학과의 입시요강과 지원가능 점수 분석 등 종합적 대학입시전략 소개. 전남 중남부권 발전계획 수립 공청회=오전 10시 장흥군청 상황실. 전통미용문화용품 전시관 착공식=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중흥 2동 현장. 남도 농악 명인 추모행사= 18일(월) 오후 2시30분 담양군 문화회관 대공연장. 새마을운동 40년 결산전. 빛고를 사진회 발표전=19일부터 30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기차와 가차길을 담은 사진 작품 전시. 자유시간=23일까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전시관. 전시회 기획동아리 '자유시간'의 창립 기념전.

광주일보가 실시한 41·42회 뉴스 퀴즈 추정 결과, 이경희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이씨는 17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으로 당첨됐습니다. 41·42회 뉴스 퀴즈에는 엽서와 편지로 307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원 박선영씨가 추첨을 했으며, 공정한 추첨을 위해 광주동부경찰서 급남지구 박영준 경장과 박은미 경장이 입회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이경희·광주시 북구 매곡동 2등 김계환·광주시 남구 백운동



추첨함

뉴스퀴즈

43.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 15회 도하아시아 게임이 16일 새벽(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총 58개·은 53개·동 82개를 획득, 일본(금 50·은 71·동 77)을 제치고 당초 목표순위를 달성했습니다. 종전 대회보다 메달 수가 대폭 줄어들었지만 지난 1998년 방콕 대회와 2002년 부산 대회에 이어 3회 연속 같은 성적을 지켜냈습니다. 이번 대회 한국의 종합 순위는 몇 위인가? ① 1위 ② 2위 ③ 3위 ④ 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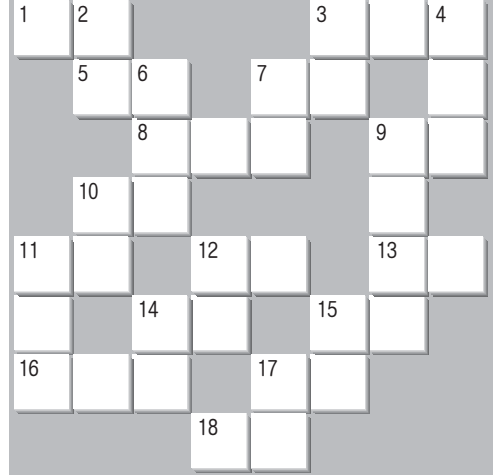
참가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지난주 정답자> 41회 - ① 도하, 42회 - ① 박태환

함께 풀어봅시다 <232>

가로풀이

1.파랗함과 차가움의 정도.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수치. 실내 ~가 높다. 3.위와 가운데와 아래. 또는 그런 세 등급. 물건의 크기에 따라 ~로 나누어 따로 상자에 담았다. 5.진흙과 모래를 차지게 반죽해 틀에 박아서 구워 만들거나 시멘트와 모래를 버무려 틀에 박아 건조한 네모진 건축 재료. 빨간 ~로 지은 집. 7.어떤 일에 대처할 계획이나 수단. 월동 ~을 세우다. 8.염치를 모르고 뻔뻔스러움. ~물 열치. 그것은 ~한 행위다. 9.불교에서 사람에게 잡힌 생물을 놓아주는 일. 10.사실에 없는 일을 사실처럼 꾸며 만들. 또는 소설이나 희곡에서 실제로는 없는 사건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창조해 낸. 또는 그런 이야기. 11.위엄찬 모양이나 모습. ~을 과시하다. 12.시대 사조,학문,유행 등의 맨 앞장. ~ 과학, 유행의 ~을 걷다. 13.학교나 직장 등에서 상위 학년이나 직책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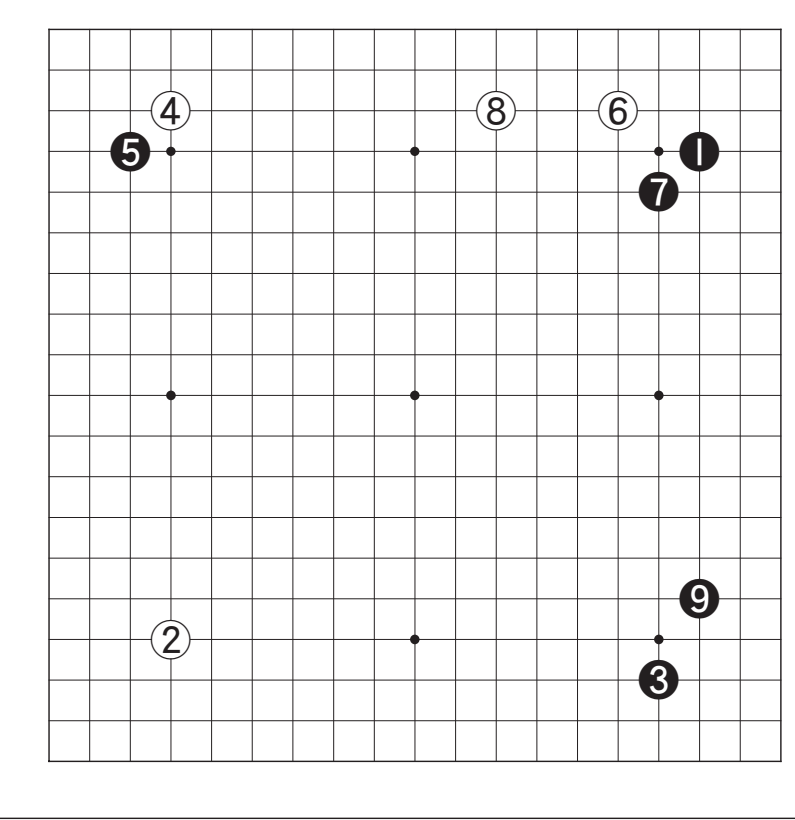
그대로 남음. 낙제를 하는 바람에 1학년에 ~이 되었다. 14.실내나 패배의 쓰러진 경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고배. 우리 팀은 예선 탈락이라는 ~을 마셨다. 15.동물의 공무나나 몸통의 뒤 끝에 붙어서 조금 나와 있는 부분. 16.음식물이 입에 당기는 맛. 재료는 별것이 아니었으나 그가 갖다 주는 음식은 언제나 맛깔스럽고 간이 맞고 ~이 낫다. 17.숯이나 질그릇,기와 등을 구워 내는 아궁이와 굴뚝이 있는 시설. 18.말을 할 때에 여는 입. 또는 말을 꺼내는 살마리. 그의 실망스런 태도에 ~이 막혔다. 2.습관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버릇. 3.가장 좋은 방책. 지난 일은 빨리 잊는 게 ~이다. 4.일정한 방식과 식비를 내고 남의 집에 머물면서 숙식하는 학생. 6.가로막은 것을 쳐서 깨뜨려 통과할 수 있도록 뚫은 통로나 목. 또는 부닥친 장애나 어려움



실경, 곡, 광, 이, 타, 갈, 에, 인, 내, 력, 관, 심, 사, 삼, 리, 각, 도, 계, 이, 회, 국, 소, 흡, 보, 를, 물, 가, 단, 수, 드, 지, 명, 타, 디, 카

1.파랗함과 차가움의 정도.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수치. 실내 ~가 높다. 3.위와 가운데와 아래. 또는 그런 세 등급. 물건의 크기에 따라 ~로 나누어 따로 상자에 담았다. 5.진흙과 모래를 차지게 반죽해 틀에 박아서 구워 만들거나 시멘트와 모래를 버무려 틀에 박아 건조한 네모진 건축 재료. 빨간 ~로 지은 집. 7.어떤 일에 대처할 계획이나 수단. 월동 ~을 세우다. 8.염치를 모르고 뻔뻔스러움. ~물 열치. 그것은 ~한 행위다. 9.불교에서 사람에게 잡힌 생물을 놓아주는 일. 10.사실에 없는 일을 사실처럼 꾸며 만들. 또는 소설이나 희곡에서 실제로는 없는 사건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창조해 낸. 또는 그런 이야기. 11.위엄찬 모양이나 모습. ~을 과시하다. 12.시대 사조,학문,유행 등의 맨 앞장. ~ 과학, 유행의 ~을 걷다. 13.학교나 직장 등에서 상위 학년이나 직책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다. 12.술이 들어 있는 잔에 술을 더 따름.~참배. 14.소태나 솜바귀 등의 맛처럼 느껴지는 맛. 15.어린아이를 귀엽게 이르는 말. 또는 조그마한 사물을 귀엽게 이르는 말. ~ 자동차. 17.가족 또는 가까운 일가로 이루어진 공동체. 또는 그 사회적 지위. ~을 빛내다. <지난주 정답자 정양기·광주시 북구 용봉동 오수희·광주시 북구 운암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 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제8회 이창호배 전국 아마 바둑 선수권 대회 전주주의 바둑축제 1부(1~9) 白 조민수 7단 (전남) 黑 김호진 5단 (서울) 최근의 아마대회는 연구생으로 있다가 나이가 차서 일반부에 합류한 신진들이 휩쓸고 있다. 그래서 이같은 연구생출신의 독주를 막기 위해 결승전까지는 주니어부와 시니어부로 나눠 진행을 하는데 김호진 5단과 조민수 7단이 최종결승에 진출 우승자를 가리게 되었다. 주니어부에서 올라온 김호진 5단은 연구생출신으로 조민수 7단과 친구사이인 프로기사 김기현 4단의 아들, 아마바둑계도 벌써 이렇게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고 있다. 흑 9까지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중 류싱, 중·일아협동산배 우승 중국 아협동산배 우승자 류싱 7단이 최근 중국에서 열린 중·일아협동산배 결승전에서 일본의 같은대회 우승자 장쉬 9단을 179수 만에 흑 불계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치러진 중·일아협동산배에서 중국과 일본은 각각 4승씩을 나눠 가졌다. 일본이 개최하는 아협동산배는 프로암 대회로 아마본인방전, 여류선수권, 학생본인방전 등 아마대회 입상자 12명이 출전, 우승자를 가리는 대회다. 일본과 중국대회 우승자는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중·일대항전에서 1국으로 승부를 결정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8일 (음 10월 28일 辛巳) 子 36년생 투지는 내일로 미루라. 48년생 적병이 숨어있으니 자만하지 마라. 60년생 협력자는 나타나나 매사에 신중 하라. 72년생 제사가 불편하니 마음의 안정을 취하라. 84년생 애인과 다름이 있으니 사랑 싸움이다. 행운의 숫자: 15, 41 丑 37년생 부부간의 불화가 발생하니 서로서로 이해하라. 49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진행은 지연된다. 61년생 모든 일이 편안하다. 73년생 직장과 아내사이 불협사조 발생할 수도 있다. 85년생 길한 일과 흥한일이 동시에 있다. 행운의 숫자: 20, 45 寅 38년생 직업과 재물에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50년생 아내와의 불화를 대화로 해결하라. 62년생 대고는 없으나 편지도 없다. 74년생 흥과 복이 다반사니 수양하는 마음이나 지내라. 행운의 숫자: 11, 27 卯 39년생 규모를 축소하고 내실을 기하라. 51년생 주변인의 간섭이 자신의 길을 어지럽히니 중중하게 처신하라. 63년생 자신의 발걸음 다시 한번 점검하라 좋은 길이 보인다. 75년생 좋은 매년에 조신한 남친이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12, 45 辰 40년생 화해보다 더 좋은 해결은 없다. 52년생 남이 시비를 걸어오니 현명하게 처신하라. 64년생 사소한 일이 송사로 가는 수도 보이니 자중이 최선이다. 76년생 금하면 그르치니 천천히 진행하면 잘못은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08, 30 巳 41년생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면 할 일이 생긴다. 53년생 꾸준히 노력한 대가가 나타나려는 시기다. 65년생 걱정을 하지마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77년생 심상의 안정이 모든 일의 싹마리를 쥐고 있다. 행운의 숫자: 09, 40 午 42년생 희망의 소리가 주변에서 들려온다. 54년생 문서를 쥐었으니 대재물의 문서로다. 66년생 큰 계획으로 임해야 더욱 값진 수확을 얻으리라. 78년생 제사가 불편하나 주변에서 도와주는 중인이 스스로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07, 36 未 43년생 제면보다는 실리가 우선이다. 55년생 작은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취하라. 67년생 타인의 시기가 고통하니 조심해서 하루를 보내라. 79년생 소심한 행동이 관단을 그르치니 적극적으로 사교하라. 행운의 숫자: 20, 37 申 44년생 화려한 과거는 꿈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생각하라. 56년생 좋은 소식이 들리니 가족에게 전하라. 68년생 과거의 문서가 속상하니 오늘은 잊어버려라. 80년생 좋은 일은 이웃과 함께 나누면 배가 되어 돌아온다. 행운의 숫자: 21, 39 酉 45년생 의행을 풀고 실속위주로 추진하라. 57년생 서로가 이해하면 서로가 득이 된다. 69년생 내일을 위해서 힘을 아껴두라. 81년생 가족은 최고의 협력자니 가족을 사랑으로 보살피라 큰 힘이 나온다. 행운의 숫자: 14, 27 戌 46년생 가까운 곳에서 협조자가 나타나니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58년생 문단속을 잘하면 마음이 편하다. 70년생 끈기 있게 진행하면 결과가 좋으리라. 82년생 오늘은 즐겨주니 무엇이든 버려두라. 행운의 숫자: 17, 25 亥 47년생 실리는 적고 할 일은 많다. 59년생 마음은 갈광질광 집착도 못할 수니 정신을 가다듬고 착하게 살아라. 71년생 의행은 풀고 실리위주로 진행하라. 83년생 귀를 막고 지내면 마음도 편하다. 행운의 숫자: 03, 29

굿모닝 잉글리쉬 <799> Which one should I apply for? 어느 항목을 신청해야 하는가? A:Hello, I understand you have several nursing positions available. B:Yes, we do. I have several levels of entry. A:Which one should I apply for? B:That would depend upon your experience. A:안녕하세요,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B: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저희는 여러 가지 직급이 있습니다. A:제가 신청해야 할 건 어느 것인가요? B:그건 당신의 경험을 보고 정해야죠. nursing position : 간호직 available : 자리가 비어 있는 entry : 기입, 기재, 직급 apply for : ~에 지원하다 depend upon ~ : ~에 달려 있다 Which+명사 : 어느~ - Which way should I go? 어느 길로 가야하는가? - Which model should I pick? 어느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가?

오하이오 니혼고 <799> どうしたの? 무슨 일 있었어? A:最近(さいきん)の若者カップルは、恥(は)ずかしさというものを知(し)らないらしい。 B:どうしたの? A:いやね、電車の中で、若いカップルが人目も、憚(はば)からず、キスを堂(どうどう)としていて、こっちが恥(は)ずかしかったよ。 B:おじいちゃん、それ「路(ろ)チユ」って言(い)ってね、もうそんな今の若(わか)い子(こ)には、あたりまえのことよ。 A: 요즘 젊은이들 커플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 B: 무슨 일 있었어? A: 아니, 전철 안에서 젊은 커플이 다른 사람 눈도 상관하지 않고 키스를 당당하게 하고 있어서 어쩍이 부끄러웠어. B: 할아버지, 그걸 '노상키스'라고 해, 이제 그런 건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당연한 거야. 恥(は)ずかしい : 부끄럽다 堂(どうどう) : 당당하게

니하오 쑹구위 <517> 十全十美 완전 무결하여 나무랄 데가 없다 A 她这个人德儿都好, 就是太固执. B 那几样十全十美的人. A 阿翰... 点儿听听别人的意见. B 听别人的意见有什么用? A 哈! 听别人的意见有什么用? B 听别人的意见有什么用? A 哈! 听别人的意见有什么用? B 听别人的意见有什么用?

한자 이야기 <417> 六甲(육갑) 여섯 육, 첫째천간 갑 육(六)은 닭개를 덮은 구멍을 본뜬 것으로 숫자의 '6'으로 사용되고 있다. 갑(甲)은 종자의 겹질, 또는 썩어 겹질을 뒤집어 쓴 모습으로, '갑옷' 나아가 '사물의 처음'을 의미한다. 육갑은 육십(六十)갑자(甲子)의 준말이다. 육갑은 앞쪽에 천간(天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10개와, 뒤쪽에 지지(地支: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12개를 결합하여 만든 60개의 간지(干支)이다. 결합방법은 처음에 천간의 첫째간 갑(甲)과 지지의 첫째간 자(子)를 붙여서 갑자(甲子)를 얻고, 다음에 그 둘째간 을(乙)과 축(丑)을 결합하여 을축(乙丑)을 얻고, 마지막은 천간의 마지막 계(癸)와 지지의 마지막 해(亥)를 합하여 계해(癸亥)를 얻는다. 60개의 간지를 얻은 후, 다시 갑자로 되풀이하는 것을 환갑(還甲) 또는 회갑(回甲)이라고 한다. 이것은 출생한 해의 간지와 똑같은 간지를 가진 해가 돌아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간지(干支)가 사용된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중국의 기원전 18세기에서 12세기에 걸친 상(商)나라의 역대 왕의 이름을 살펴보면 태갑(太甲)·육정(沃丁)·천을(天乙) 등 천간의 글자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것을 보아 이 시대에 이미 간지가 사용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예민(韓藝敏) 조선대학교 교편연구원 ☎ 230-6505